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분발사

한 북표 농민공 아버지의 분투 일기

그 누구나 꿈이 있다.
채소 장사 아저씨의 스토리는 '차이나 드림'
에 대한 더 없이 적절한 표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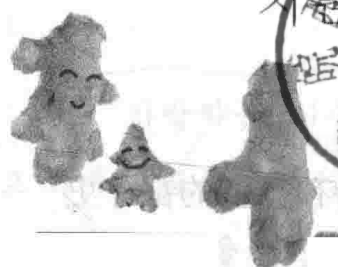


채소장사 아저씨의 일기

요치중 지음
지원 옮김

채소장사 아저씨의 일기

요치중
지원



图书在版编目 (CIP) 数据

卖菜叔日记：写给孩子们的奋斗史（朝鲜文）/ 卖菜叔著；金志原译. — 北京：北京时代华文书局，2013.9

ISBN 978-7-80769-052-8

I. ①卖… II. ①卖… ②金… III. ①日记—作品集—中国—当代—朝鲜语

IV. ①I267.5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 (2013) 第 192034 号

卖菜叔日记：写给孩子们的奋斗史

著 者 | 卖菜叔

译 者 | 金志原

出 版 人 | 田海明 朱智润

责任编辑 | 余 玲 智王晴

责任校对 | 王 吟

装帧设计 | 程 慧 赵芝英

责任印制 | 刘 银

出版发行 | 时代出版传媒股份有限公司 <http://www.press-mart.com>

北京时代华文书局 <http://www.bjsdsj.com.cn>

北京市东城区安定门外大街 136 号皇城国际大厦 A 座 8 楼

邮编：100011 电话：010-64267120 64267397

印 刷 | 北京画中画印刷有限公司 010-63706888

（如发现印装质量问题，请与印刷厂联系调换）

开 本 | 787×1092mm 1/16

印 张 | 19.25

字 数 | 260 千字

版 次 | 2013 年 9 月第 1 版 2013 年 9 月第 1 次印刷

书 号 | ISBN 978-7-80769-052-8

定 价 | 68.00 元

版权所有，侵权必究

사랑하는 아들딸,
그리고 저에게 도움을 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출판사 서문

일찍부터 온라인을 통해 “채소 장사 아저씨”의 사연을 관심 있게 지켜 보아왔고, 드디어 수개월에 걸친 노력 끝에 <채소 장사 아저씨의 일기>가 출간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도 우리가 받은 감동을 함께 하길 바랍니다.

“채소장사 아저씨”의 이름은 요치중이고 안후이성 푸양시의 가난한 농민 출신입니다. 어려서부터 집안형편이 어려 워초등학교 4학년때 학교를 그만두고 생계를 위해 일을 하기 시작했고 열아홉살부터는 가난을 벗어나고자 다른 농민들처럼 공사판 일용직 노동자로 일했습니다.1997년에 베이징에 올라와 채소장사를 시작한 그는 몇년을 고생한 끝에 가족을 베이징으로 데려와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요치중은 자신이 왜 이렇게 가난한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 원인은 배우지 못해서 그렇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식들에게 가난을 대물림 하지 않기 위해 아무리 힘들어도 자녀 교육만은 소홀하지 않겠다고 결심했기에 비싼 학비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을 원하는 무술학교에 보냈습니다. 그의 기대처럼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했고 성적도 뛰어났습니다. 특히 둘째 아들은 전국 무술시합에서 여러 차례 상을 받았으며, 해외 시합에 참가하여 우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요치중은 자신의 인생과 아이

들의 성장 과정을 글로 써서 “정신적 유산”을 자식들에게 남겨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그는 채소 가게 일을 하면서 틈틈이 또는 가족들이 잠든 깊은 밤에 <신화사전>을 찾아가며 한 글자 한 글자씩 적기 시작했습니다. 3년간 무려 20만 자가 되는 글을 썼으며 그것을 정리한 것이 바로 <채소 장사 아저씨의 일기>입니다.

가난한 운명을 벗어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달렸던 요치중은 20여 년간 수많은 시련과 고난, 역울함을 겪었으나 항상 밝은 미래에 대한 굳건한 신념을 지니고 그 어떤 일에도 좌절하지 않으며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여러 고난 앞에서 그는 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고 합니다.“고난은 성공의 디딤돌이다.”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원하는 바를 성취한 그의 얼굴에는 늘 행복한 미소가 피여 오릅니다.

요치중은 평범하고 소박한 보통 사람입니다. 그가 꿈꾸어 왔던 행복한 생활에 대한 갈망, 자식들을 더 좋은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한 노력, 자신의 인생가치를 실현하고자 위한 꾸준한 노력은 많은 이들이 바라는 아름다운 소망이며,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성실하고 용감한 이들을 대표하기에 우리는 존경을 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성취하기까지 요치중은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으나 동시에 사회의 관심과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치중은 항상 사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으며 또한 이런 마음이 그에게는더할 수 없는 온기와 힘, 희망이 되었습니다.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요치중을 더욱 인간적이고 친절한 사람으로 되게 하였으며 요치중의 희망과 노력은 자신의 꿈과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분투하는 많은 이들에게 깨우침과 격려를 줄 수 있었습니다. 서로 배우고 돕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바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커다란 힘이 되고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채소 장사 아저씨의 일기>를 여러분에게 추천하

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요치중처럼 고달픈 일상 속에서 가족의 행복을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있거나, 요치중에게 도움을 주었던이들처럼 사회의 약자를 관심하고 심혈을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거나, 지금 한 가정의 가장 또는 자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의 일기로부터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 평화롭고 따뜻하게 만들도록 노력해야겠다는 감동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치중의 가족들이 행복한 생활을 이어가고, 꿈을 이룰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이들이 사회의 따뜻한 관심 속에서 그들이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디렉터리

출판사 서문....1

제 1 장 힘겨웠던 어린 시절

어린 시절은 대부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행복하고 즐거운 시절이며, 소중한 아름다운 추억으로 가득차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어린 시절은 너무나도 불행하여 돌이킬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 그 당시 왜 운명은 유독 나에게만 이렇게 짓궂은 것일가고 항상 물었지만 답이 없었다. 어린 시절은 너무나도 슬픈 과거로 내 마음속에 자리잡게 되었다.

우리 집안....3

어려운나날들....7

불운의 가족....10

가장 밑바닥에 서있다....13

재주많은 어머니....16

산 개가 죽은 정승보다 낫다....19

어머니가 돌아가시다....22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의 쓰라림....24

불운했던 아버지....28

아버지의 인부시절....32

더는 허송세월 하지 않겠다....34

제 2 장 라향살이의 시작

나는 위해에서 5년간 막노동을 했다. 이 5년간 겪었던 많은 일들은 나의 추억으로 남았다. 위해를 떠올릴때마다 말로선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솟아난다. 고생 외에 또 다른 것은 없을가? 돌이켜보면 고마운 추억이 남아있다. 이것이 내가 그 곳에 대한 가장 진실한 감정이다.

타향에 나가 생계를 도모할 생각이 싹트다....39

위해로 떠나다....42

먹다 남은 밥을 먹으며 식권을 모으다....44

죽다 살아남다....47

아껴먹고 열심히 일하다....50

처음으로 돈을 벌어 집으로 가다....53

새 집을 짓다....56

결혼, 노총각 이미지를 벗다....60

화를 내느니 차라리 분발 하겠다....63

어렵게 찾아온 행복....67

아버지가 돌아가셨다....69

두차례의 의외 사고....72

베이징으로 떠나기 전....75

제 3 장 "북표"생활의 시작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북표"(꿈을 실현하기 위해 베이징으로 몰려드는 중국 지방 출신 사람들을 일컫는 말) 라는 단어는 낯설지 않을 것이다 . 나 또한 지금까지 "북표" 생활 16 년차이며 나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베이징 생활이 고달프고 어렵다는 푸념을 심심찮게 들어왔다 . 사실 그 심정을 잘 안다 . "북표들만이 북표의 쓰라림을 안다"고 나는 고향을 떠난 후 여태까지 늘 가난 , 상처 , 비웃음과 맞서 싸우고 있었다 . 하지만 인생이란 바로 달콤함과 쓰라림 , 신 맛과 매운 맛들이 뒤섞여 있는 험난한 여정이 아니겠는가 ?

처음으로 베이징에 오다....	81
장사 전 준비....	84
장사를 시작하다....	87
안정적인 노점 자리가 생기다....	91
구정에는 꼭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	95
길거리 장사하던 나날들....	98
가족들이 베이징에 오다....	102
귀인을 만나다....	105
사고가 끊이지않다....	108
고생을 디딤돌로 삼다....	112
친척을 베이징에 데려오다....	116
혈육의 정이 시련을 맞이하다....	119

제 4 장 장 힘들어도 열심히 살아야 한다

가끔씩 남부러울것 없는 이들이 형편이 어렵다고 푸념하는 것을 보아왔다. 물론 그들 나름대로 힘든 구석이 있겠지만 나는 불만을 입에 달고 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어려울수록 더더욱 긍정적이어야 하며 불행을 이기는 한가지 법칙이 있으니 이는 바로 곤난에 부딪혔을 때 조금만 참고 견디면 고비는 반드시 넘기고 밝은 미래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다!

도시 관리자를 피하기 위해 큰 손실을 입다....125

온갖 쓴맛을 맛보다129

견디기 힘들었던 2003년....132

창평수용소....135

사하농장에서 막노동을 하다....138

순조롭지 않은 일들....142

따뜻함이 그리워지다....145

고개를 들어라....148

도와준 이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153

제 5 장 장 너희들을위해서라면 아무리 힘들어도 달갑단다

자식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은 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이다. 삶에서 수많은 쓰라림, 풍파, 곤경, 억울함을 겪어도 자식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철들어 의젓한 모습을 보면 온 종일 쌓인 피로가 씻은 듯이 사라진다. 아이들은 우리가 어떤 고생을 겪었는지 잘 알고 있으며 진심으로 우리에게 감사하고 있다. 이는 내가 가장 자랑스럽

고 뿌듯하게 느끼는 바이다 .

둘째 아들이 무술을 배우게 하다....157

방산 요러푸도장....160

몸에 걸친 싸구려 옷들....164

작은 신을 신은 에피소트....166

작은 이익을 얻다....169

식중독에 걸리다....172

열심히 글을 쓰다....174

아들의 미래를 위해 분투하다....178

제 6 장 장보석이라면 언젠가는 빛을 발하기 마련이다

나는부지런은성공의 지름길임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또한 노력은 인재가 되려는 자에게 있어서가장큰원동력이라고생각한다 . 나는늘 아이들에게부지런함과노력이두가지성품만갖추면한발은성공의대문에들어선거나 마찬가지로가르쳤다 . 결과와 상관없이노력 그 자체 만으로도 성공하기시작한 것이다 . 나는 절대 아이들이 게으름에 익숙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다 . 이는성공에 있어서가장큰적이다 .

요우이의 학교생활....183

우승 메달을 따내다....187

아들을 잘 키우자....190

연이어 수상하다....193

마카오에 출전하다....196

영화를 찍는 기회를 맞이하다....200

올림픽을 위해 공헌하다....203

아이는 빛나고 있다....206

제 7 장 아이들에게 무궁무진한 “재산”을 남겨주자

살면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할가? 아무리 많은 돈과 땅을 남겨준다고 해도 자신이 분발하지 않으면 그 많은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될 것이다. 아이들의 성장과정을 기록하여 그가 자신의 가족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야말로 크나큰 재산을 남겨주는 것이다. 정신적 재산은 황금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삶의 불변의 진리라고 생각한다.

처음으로 인터뷰를 하다....211

친척과 화해하다....215

성장의 발자취를 기록하다....219

나날이 향상하고 있는소리를듣다....222

행운의 한해....225

사회를 위해 공헌하다....227

모든 아이들이 인재로 자라나기를....229

아이야, 우리 더 노력하자꾸나....232

제 8 장 눈물, 땀방울, 사랑이 어우러져야 행복이라네

“매화 향기는 찬 바람을 맞으며 피어나고 명검은 거친 연마를 통해 다듬어진다”고 아무도 쉽게 성공하지 않는다. 성공에는 반드시 남모를 시련이 뒷따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련들을 인생의 감칠맛이

라고 생각하면 그다지 힘들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성공의 희열을 느낄 수 있다.

성공에 뒤따르는 시련....237

아무리 가난해도 교육에 소홀해선 안된다241

세상에는 착한 사람이 더 많다....244

미국 AP사 기자와의 인터뷰....247

지식이야말로 성공의 대문을 여는 열쇠다....250

성공하려면 뭘뭘이가 우선이다....252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이자....255

12% 속의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자....259

아이가 훌륭하게 자라서 너무나 기쁩니다....265

부 록

인터뷰 기록....269

매스컴 평론....275

네티즌 소감....284

후 기....287

제 1 장 힘겨웠던 어린 시절

어린 시절은 대부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행복하고 즐거운 시절이며, 소중한 아름다운 추억으로 가득차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어린 시절은 너무나도 불행하여 돌이킬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 그 당시 왜 운명은 유독 나에게만 이렇게 짓궂은 짓일가고 항상 물었지만 답이 없었다. 어린 시절은 너무나도 슬픈 과거로 내 마음속에 자리잡게 되었다.

우리 집안

우리 집안은 대대로 농민이었으며, 나의 어린 시절은 꽤지게 가난하였다. 하루 세끼조차 어려워 하루에 겨우 한끼만 먹은적도 있었다. 요즘 유행하는 웰빙식품인 옥수수 가루도 그 시대에는 어쩔 수 없이 먹었던 밥이자 반찬이었다.

나의 이름은 요치중이라고 한다.우리 집은 안후이성 푸양시 다쉬잉이라고 불리우는 한적한 시골에 자리잡고 있었다.

우리 집안은 무척 가난하여동네 동쪽에서 살던 집터는 여러 세대가 살던 초가집인데 어둡고 낡았다. 우리집이 들어가 살기 전에는 생산대 외양간이나 창고로도 사용됐다. 동네 서쪽에 자리잡은 두칸 방은 어머니가 이웃에게 사정하여 120근의 밀로 겨우 바뀐 것이다. 아버지는 약간의 지적장애셨으며 평생 화장실 하나 마련하지 못하여 식구들은 매번남의 집 화장실을 빌릴수 밖에 없었다. 심지어 비자루 살 돈마저 없어서 집구석은 일년내내 두터운 흙먼지로 덮여 있었다.

우리 집은 동네 사람들이 드나들때 꼭 지나가는 길목이었으며, 온 동네 사람들의 놀이터였다.누구든지 맘대로 우리집 앞을 드나들었으며,산후조리 중아낙들과 새댁들이 집앞에서 꺼리낌 없이 들락날락 하면 어머니는 부정 탄다고 그들과 몇번이나 실랭이를 벌였는지 모른다. 아버지는 워낙에 나약한 성격인지라 도움이라곤 전혀 되지 않았다.사람들은